

POLITICS 전남도, 전국 최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2025년 5월 9일 금요일

1차 준공식...54억 투입 영광 월평마을에 총 3MW 예정 주민주도형 이익 공유...소득 증대·지역소멸위기 극복

전남도는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주도해 전국 최대인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이다.

총 54억 원을 들여 연면적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사업 운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발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인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kW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로서 실증효과는 물론 지속 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또한 주민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민 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현을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 8천 원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후 전국 지자체, 농민, 단체, 기관 등 견학과 시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열린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MW)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주요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되며, 이는 농촌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재생에너지 산업은 AI 첨단산업 투자 실현을 유리하게 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23GW까지 확대하고 주민 이익 공유를 제도화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 확대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능력을 높이고, AI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등 첨단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인구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자체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지자체 연관산업 및 RE100 수요기업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여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박정렬 기자 hohul@gwangnam.co.kr
영광=정규필 기자 ykigp98@gwangnam.co.kr

“65세 ‘계속고용’ 의무 부여” 경사노위 공익위원 첫 제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았다.

경사노위 산하 연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 무가 부여된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청년고용 상황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아이들의 미래 위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단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단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신애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 조석호 시의원, 어린이집 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윤석열씨의 불법적이며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로 인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다”며 “더욱 참담한 현실은 보수세력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동조하며 민주주의를 다습금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단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는 진짜 대한민국이 절실하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의 노동권 보장,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의 회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의로운 보육국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양부남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광주시당위원장)은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 실호성 있는 보육 정책, 현장과 동행하는 정치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

광주 보건의료인, 의료현안 국정과제 채택 한목소리

오늘 연합 대선기획단 발대

광주 보건의료인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의료 현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사회는 9일 광주 동구 라마다 플라자 총장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신

기획단 광주본부·보건의료인 연합 발대식을 개최한다.

연합에는 광주지역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조무사회, 작업치료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방사선협회, 치과위생사협회가 참여, 보건의료 연대를 결성한다.

이들은 광주에 직면한 고령화, 공공의료 붕괴, 지역소멸 위기 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과제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데 한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특히 공공병원 적자 보전 제도화,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지원, 광주의료원 설립, 조선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 병원 새병원 국가 주도 추진 등 6대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이선하 기자 goback@

서왕진, 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

“내란 종식·새 대한민국 선포”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서왕진 의원(사진)은 8일 “내란을 종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이 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을 승리한 후 수락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기획재정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 △제3원내교섭단체 실현을 통한 정치개혁 주도 △사회권선전국 실현과 민생입법 추진에



을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 예고 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5·1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주권자 국민이 맨몸으로 12·3 군사 내란에 이어 5·1 사법 내란을 맞아 왔으나,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형사소송법, 범법조직원,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남도, 정량지표 ‘전국 1위’ 쾌거

역대 최초·유일 ‘2년 연속’ 100% 목표 달성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지표에서 2년 연속 100%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정량지표 100% 달성한 것이다. 2년 연속 100%는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다.

올해는 정량지표(목표달성도 평가) 97개와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17개 등 총 114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정량지표에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청사 에너지 절감율과 지방 물가 안정관리 실적,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우선 구매물 등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화융성근거 확대 정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전남도, 시군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이같은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 시군 10곳과 발전 시군 12곳을 선정해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도의 합동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https://la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시, 챔필 노후 관람석 전면 교체 진행

8월까지 ‘경기 없는 날’ 일 200개씩 총 1만6294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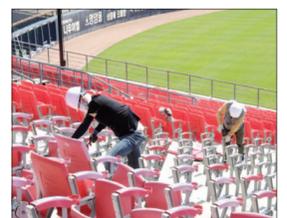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노후 관람석 전면 교체를 진행한다.

지난 2015년 준공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일반 관람석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후 관람석 교체를 위해 지난해 10월 KIA 타이거즈와 ‘지역사회의 스포츠 문화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일반 관람석 정비를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난 3~4월 기존 관람석 틀에 맞는 급형 제작을 추진, 현장 테스트를 거쳐 최종 완성했다.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관람석보다 좌판과 등판, 컵홀더 크기를 확대했다. 디자인과 색상은 동일하다.

당초 4월 교체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창원NC파크 사고에 따른 구장 점검으로 창원NC파크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 원정경기가 휴경기로 대체됨에



따라 다소 늦어져 지난 7일 교체작업에 들어갔다.

관람석 교체 작업은 3루측 타이거즈가 족석·K5석을 시작으로 3루측 K8·K9와 중앙테이블석, 1루측 K9·K8·K5·타이거즈 가족석, 가장 위층에 있는 EV석 순으로 진행된다.

1일 교체수량은 200여 석으로, 일반 관람석 총 1만6294석을 전면 교체한다. 기아팬과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없는 날 교체 작업을 진행, 관람과 경기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장승기 기자 sky@